

다문화 여성 “자격증·박사학위 있어도 임시직 밖에 없어요”

광주·전남 다문화 여성 ‘취업 전쟁’

광주·전남 다문화가정 여성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지 못해 ‘취업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가정 여성과 결혼 이민자들이 해마다 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사회에 이들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경제적 안정을 보장할 수 있는 취업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13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광주·전남 지역에서 귀화자를 포함한 결혼이민자는 2만 1500여명에 달한다. 국기별로는 베트남 출신이 8310명으로 가장 많고, 중국 5921명, 필리핀 2421명, 캄보디아 1363명, 일본 1048명 등이다.

광주·전남지역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들은 2020년 1만9935명, 2021년 2만371명, 2022년 2만878명, 2023년 2만1500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광주일보가 최근 만난 결혼이민자들은 “광주와 전남에 정착하고 싶지만, 안정적인 일자리가 없어 고민이다”고 입을 모았다.

지난해 12월 3일 중국 출신 결혼이민자 손흥매

결혼 이민자 2만1500명 달해 열심히 일해도 차별에 부딪히고 안정적인 일자리 찾기 너무 어려워 이민자에 마음 열고 기회 줬으면

(여·40)씨는 취업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는 소식을 광주시 남구 노대동에 위치한 광주남구가족센터를 찾았다. 한국에 유학을 왔다가 10여년 전 남편을 만나 결혼했다는 손씨는 “4세인 아들의 양육비와 교육비 등 앞으로 돈이 더 들어갈텐데 안정적인 직업을 갖지 못해 걱정이다”며 “광주에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는 것은 그야말로 하늘의 별따기”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손씨는 한국어 석사학위와 전자상거래 박사학위까지 취득했지만 여전히 취업의 장벽은 높았다. 꾸준히 어학원 등에서 중국어 강사로 일했지만 계약직이었다.

대학 강사를 꿈꾸는 손씨는 “한 아이의 엄마로서 아이를 잘 기르기 위해 일자리를 알아보다 보니 차



중국 출신 손흥매씨



베트남 출신 이나영씨



베트남 출신 이은하씨

츄 지역 사회에 어우러질 수 있게 됐고, 꿈도 갖게 됐다”며 “안정적인 일자리만 가질 수 있다면 마음 놓고 광주에서 즐겁게 지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베트남 출신 이은하(여·31)씨 역시 취업 준비에 여념이 없었다. 4세, 8세, 12세 3명의 아들을 둔 이씨는 “육아전쟁”을 치르면서도 틈틈이 미용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 학원을 다닌다.

결혼 후 한국으로 이민을 온 지 12년차인 이씨도 이주 직후에는 서툰 한국어 탓에 힘든 일이 많았다고 털어놨다. 식당이나 건물 청소 등 각종 아르바이트를 했지만 소통이 어려웠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차별에 부딪혀야 했다. 하지만 아들들을 위해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력했고, 한식·일식·중식·양식 4개의 자격증을 손에 넣었다. 2017년 무렵에는 귀화까지 해 연연한 한국인이 됐다.

문제는 한국어가 능숙해지고, 각종 자격증을 따도 단순 아르바이트 외에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다는 데 있다. 이씨는 “미용사 자격증을 따 이후에도 손님들이 ‘외국인을 못 믿겠다’고 할까봐 걱정”이라며 “광주에도 이민자들이 점점 늘어나는 만큼 마음을 열고 기회를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나주에서 거주하는 베트남 출신 이나영(여·35)씨는 전남도의사회 의료봉사단에서 ‘비보험 외국인 대상 찾아가는 진료 서비스’ 사업 행정과 회계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그도 해당 사업이 이달 말 끝나고 내년 생계를 걱정해야 할 상황이다.

이씨는 사회복지사를 목표로 나주 동신대에서 사회복지학과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으나, 자격증을 따 이후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보가 턱없이 부족해 앞길이 막막하다고 한다.

이씨는 “토픽과 이종언어강사, 컴퓨터활용능력 등 다양한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지만 한국인도 취업이 어려운데 이민자는 더 어렵지 않겠느냐”며 “단순한 자격증 수업 외에도 자제된 취업 상담과 취업 연계 프로그램, 이력서 작성이나 전문용어 수업 등 세밀한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올바른 손씻기 배우자

최근 광주시에서 인플루엔자(독감) 환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13일 광주시 북구청 어린이집 원생들이 광주북구보건소에서 올바른 손씻기 방법을 배우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검찰, 부친 살해 무기수 김신혜 재심 무죄에 항소

검찰이 진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신혜(여·47)씨에게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법원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광주지검 해남지청은 13일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재심 판결은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당초 무기징역이 선고된 이유가 김씨가 수사기관 출석 전부터 가족과 친척들에게 범행 사실을 말하고 수사기관에서도 범행을 자백했다는 점이 인정됐다는 것을 강조했다.

검찰은 “재심 1심법원에서 김씨가 허위 자백했을 가능성과 압수물이 위법하게 수집됐다고 판단한 점

은 받아들이 수 없다”면서 “수사·재판 경과와 재심 1심 판결이유 등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신중한 법리 판단과 이를 바탕으로 한 사실인정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0년 3월 7일 완도군에서 수면제 30알을 탄 양주를 마시게 해 아버지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재심판결로 풀려났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도시철도 공사현장 노후 상가 ‘기우뚱’

남구 “방림동 건물 균열” 민원 접수

광주시 남구가 광주도시철도 2호선 공사현장 인근 노후 상가주택이 기울었다는 민원이 접수되자 조치에 나섰다.

13일 남구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방림동의 한 건물에 대해 “대납대로 쪽으로 약간 기울어져 있으며 건물에 균열이 많고 바닥 접합부가 드러나는 것처럼 보인다”는 민원이 접수됐다.

건물 인근 주민들이 도시철도 2호선 공사 여파로 건물이 기울어졌다고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구는 건축안전센터를 통해 현장 점검한 결과 육안으로 건물이 다소 기울어진 사실을 확인했다. 이 건물은 1987년 사용 승인을 받았으며

지상 3층 규모로 분식점·사무소·주택으로 사용되고 있다.

도시철도 시공사가 측이 외부 업체를 통해 조사한 결과 건물에 설치된 균열 계측기(2021년 2월부터 기록), 수직도 계측기(2022년 7월부터 기록)에는 유의미한 변화가 기록되지 않았다. 다만 도시철도 공사 착공 이전 기록은 확인하지 못해 도시철도 공사의 영향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남구는 도시철도본부와 건축주에게 안전조치를 요청하고, 해당 건물 거주자에게는 긴급주거 지원 서비스를 제공했다. 남구는 14일 광주도시철도건설본부에 정밀안전진단을 의뢰해 지반 침하, 건물 전도 위험성 등을 조사하고 도시철도 공사와의 연관성 등을 파악할 방침이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광주시교육청, 17개 특수학급 신·증설

광주시교육청은 13일 장애 학생의 교육 선택권 확대를 위해 16개 학교에 17개 특수학급을 신·증설한다고 밝혔다.

특수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2025학년도 증설 규모는 유치원 3원 4개 학급, 초등학교 4개교 4학급, 중학교 4개교 4학급, 고등학교 5개교 5학급 등이다.

그동안 특수학급이 부족했던 사립학교에도 3개교 3개 특수학급을 신설할 예정이다.

금호중·양중·고려고·광덕고 등에 특수학급을 설치하면 사립학교 특수학급은 7개교 10개 학급에서 10개교 13개 학급으로 늘어난다.

특수학급 확대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꾸준히 늘어남에 따라 추진됐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2월 특수학급 설치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2025학년도 유·초·중·고 입(진)학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희망 학교에 대한 사전 조사를 했다.

특수교육담당팀·학교설립팀·사학정책팀이 학교를 직접 방문해 특수학급 신·증설을 논의했다.

광주지역에서는 지난해 유치원 25개교 29개 학급, 초등학교 138개교 180개 학급, 중학교 59개교 74개 학급, 고등학교 23개교 45개 학급의 특수학급이 운영됐다. /윤영기 기자 penfoot@

경찰청 | 금융감독원 | 생명보험협회 | 손해보험협회

허위 입원하고 보험금 편취해서 여행 다니는 위 조작군

보험료 상승의 주범 보험금 깎아먹는 기생충이 되지마세요!

가짜환자도 보험사기 공범인 걸 모르는 나 한심 여사

환자를 유인해 크게 한탕 노리는 보험금 편취 조직 사기꾼 브로커